

4-1 56번 이재윤

11일 (토요일)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안전여름날았다.

제목 : 짜증난 귀기대인!

아침 일찍 일어나기 운동장으로 열심히 뛰어갔다. 그리고
우리반이 몇명 왔는지 확인을 하였다. 총 19명이 왔다.
너무 적었다. 하지만 다른반도 작게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.
우리는 처음에 6반이나 준방을 하였다. 애들이 6반 정말
못한다고 하였다. 하지만 냉심금지!! 처음부터 하늘이 터
진공에 여지구가 맞았다. 뭐야! 긴장했어! 왜? 공을 못
잡어! 그다음 우린 패하는 것만 했다. 이제! 남자애들
실력 발휘!! 공이 안되면 딱 잡고! 공이 클수록 안면 딱 잡고!
던져! 업! 아윳! 아윳! 6반 애들이 줄줄이 아윳이 되었다.
예! ~ 하지만 수비하는 애들이 공을 잘못던져서 6반한테
터기름이 갔다. 6반이 이태민이 있어서 애들이 계속
이태민한테만 패를 하였다. 나도 맞았다. 아윳이 되어서
밖으로 나가려고 할때 6반 있던 남자애가 내
머리에 공을 던졌다. 너무 아팠다. 하지만, 내때문에 경기가
이따금씩이면 안되니까 꼭 참고 갔다. 많이 살아남았던
우리반이 줄줄이 아윳이 되었다. 이제 마지막 원상복
귀! 남지않았다. 아윳!... 현안공이 공을 맞아서 아윳이
되었다. 우리반은 진것이고 결승도 못했다. 흥! ~ 6반하고
2반이 결승을 하였다. 말도 안된다. 2반이 우리한테
졌는데... 결승이래니. 결국 6반이 이겼다. 내날 6반이
비켜! 짜증나! 다음에는 꼭! 일등을 할 것이다.